동아시아 불교에서 원효 스님의 위상은

삼성현博, 10월 18일 국제세미나

올해 탄생 1400주년을 맞은 원효 스님의 동아시아 불교 내 위상을 살펴보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린다.

경산시 삼성현문화박물관은 오는 10월 19일 박물관 강당에서 '동아시아 불교와 원효대사의 위상'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용표 동국대 명예교수의 '원효와 현대세계', 아케오 에이케이 前 교토국립박물관 수석연구원의 '한국과 일본의 화엄사상', 이현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의 '역사인물 재현의 시각과 해석', 이승희 홍익대 교수의 '일본 교토 고산사의 원효 에마끼'를 발표한다.

또한 박태원 울산대 교수는 원효 스님의 핵심사상 중 하나인 화쟁에 대한 '통섭과 화쟁은 어떻게 가능한가'를, 고영섭 동국대 교수는 원효 스님의 일심사상에 대해 고찰한다.

리사룡 북경대 교수는 원효 스님과 천태와의 연관 관계를 살피며, 미야자키 켄지 대곡대 박물관 연구원은 원효의〈판비량론〉에 대해 논의한다.

논문 발표 이후 종합토론의 좌장으로 이평래 대행선연구원장이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김민 (국민대), 신용철(양산시립박물관), 배경아(울산대), 조윤경(동국대), 조수동(대구한의대), 김준호(울산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대각사상연구원 '대각사상' 논문 모집

대각사상연구원이 오는 12월말 발간 예정인〈대각사상〉제28집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한다.

논문 주제는 '백용성 스님과 대각사상' 또는 '근현대 불교사'와 관련된 논문이다. 모집기한은 10월 31일까지며 분량은 A4용지 15~18매이다. 워드프로세서(한글 2007 이상)로 논문을 작성해 기한 내에 제출하면 되며, 영문초록, 국문초록, 국문주제어, 영문 키워드, 참고문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대각사상연구원은 "백용성 스님의 대각사상을 선양하기 위해 창립된 본 연구원의 학술지〈대각사상〉에 회원 및 연구자들의 옥고를 보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학술지 수록 여부는 학회 편집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게재 논문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신성민 기자

사명대사 선양사업 확대된다

시첩 등 역주서 출간 고불
호국정신 계승 학술대회서
발굴된 시첩 분석 논문 발표
사명대사 다큐 제작 위해
밀양시 · BTN · BBS 협약

호국의승의 상징인 사명대사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 사명대사 자료 역주서가 발간됐으며, 정신 선양을 위한 학술대회가 열렸다. 또한, 사명대사 다큐멘터리 제작도 밀양시와 불교계 방송사가 나섰다.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승석)의 사명대사 자료 역주서 출간이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9월 17일 밀양 표충사(주지 법기)에서 '사명대사 자료 역주서 출간 기념 고불식'을 봉행했다.

사찰 소장 불교자료를 집성하는 사업인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ABC)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자료 역주서에는 전체 256건의 고문헌과 문서로써 사명대사의 의승활동, 표충사의 중건 등과 관련한 호국불교 자료가 많이 포함돼 있다.

특히 사명대사의 호국 활동에 관한 서간첩과 시첩, 16책은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귀중한 자료다. 18세기 중엽 표충사는 사찰을 중건하고, 사명대사의 유고집인〈분충서난록(奮忠 紓難錄, 1739)〉을 간행했으며 표충사송운대사영당비(1742)를 건립하는 등 사격을 크게 진작했다.

이 같은 불사를 이끈 인물이 사명대사의 5세손인 태허 남붕(太虛南鵬, ?~1777)이다. 남붕은 사명당의 유고(遺稿)를 들고 당대의 고위관료, 저명인사 등을 찾아다니면서 160명에게 164수의 시를 받았다. 이 시를 모아〈표충사제영록(表忠寺題詠錄 1739)〉 목판본을 간행했다. 당시 영의정이었던 송인명, 후에 좌의정에 올랐던 조현명 등의 시도 포함돼 있다.

〈표충사제영록〉을 간행하기에 앞서 받은 시를 책으로 묶은 것이 총 8권의〈표충사제영(表忠祠題詠)〉이다. 이번 조사에서 8권의 시첩을 모두 조사했으며, 목판본〈표충사제영록〉에 실리지 않은 새로운 시 등이 확인됐다.

사명대사 관련 시첩에 대한 1차적 연구 성과는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 이하 BTN)가 9월 22일 '사명대사의 호국활동과 현대적 계승'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확인됐다.

이대형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표충사 제영〉 시첩의 가치와 목판본의 편제' 발표를 통해 시첩을 분석했다. 그는 "〈표충사 제영〉1권에는 시첩에 대한 서발문 등과 함께 시를 실었고, 이후는 모두 시문으로 차운시가 월등히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대부들의 찬시다보니 사명대사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도 확인됐으며, '숭유억불 사회'의 조선 양반들의 불교에 대한 그릇된 인식들도 담겨있었다.

이와 함께 밀양시와 함께 불교를 대표하는 방송사인 BTN과 BBS불교방송(사장 선상진)이 함께 사명대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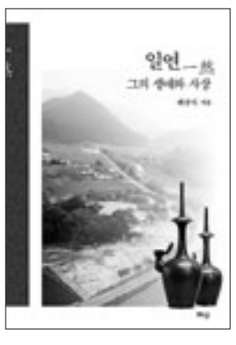
박일호 밀양시장과 선상신 BBS불교방송 사장, 손정현 BTN불교TV 영남총국 총괄국장은 9월 4일 밀양시청 소회의실에서 '사명대사 다큐멘터리 제작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표충사 주지 법기 스님도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BTN과 BBS는 밀양시의 지원으로 사명대사의 생애를 조명하는 UHD 다큐멘터리를 제작에 들어간다. 다큐멘터리는 2018년 방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삼국유사, 시대 고민 담긴 역사서"

주목! 학술서
채상식 부산대 교수의
'일연, 그의 생애와 사상'

수행승으로 살아왔던 일연
만년에 삼국유사 찬술 매진
'고려 再造' 역사 인식 바탕



일연 스님(一然, 1206~1289)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삼국유사〉를 찬술한 저자 정도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금껏〈삼국유사〉에 대한 높은 사학사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작 일연의 행적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없는 형편이다. 고려시대 가장 격동기였던 13세기를 살았던 일연의 생애가 중요한 것은 그가 역사가이기 이전에 승려라는 사실과, 그가 생존한 시기가 민족사상의 일대 격변기라는 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그런 의미에서 채상식 부산대 사학과 교수의〈일연, 그의 생애와 사상〉은 고려말 격변기를 살아간 일연이라는 승려가 얼마나 많은 스펙트럼을 가졌는지를 확인시켜준다. 오랫동안 고려불교사와 일연을 연구해 온 저자는〈삼국유사〉라는 필터를 거쳐 그에게 접근하기보다 일연을 중심축에 두는 연구 방향을 택했다.

실제, 일연 스님은 비슬산에서 20여년 수행하다가, 정안의 초청으로 남해 정림사에 주석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대장경 조판에 참여했다. 간접적이지만 수선사 혜심의 영향도 받았다.

이후 일연의 행적은 정치권력의 향배에 따라 전개됐다. 일연 스님이 대선사가 되고 원종의 명에 의해 선월사에 주석하게 된 것은 "왕정복고 세력들과 연계돼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저자의 견해다.

이와 함께 채 교수는 일연 스님은 1차적으로 공안을 타파한 선승이었지만, 교학과 신앙적 측면에서도 소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일연 스님의 신앙적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인흥사를 통한 관음신앙이었다. 이는 민족적 위기를 극복하고 민중들에게 신앙적 대안을 목표로 하여 찬술된〈삼국유사〉로 연결된다. "신앙과 역사가 합일점을 모색한 것"이다.

실제, 일연 스님은 고려사회 내부의 변화와 대외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삼국유사〉는 국가, 국왕 중심의 역사관으로 권신을 비판하는 내용과 단군으로부터 민족사의 체계를 정립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채 교수는 "일연은 궁극적으로는 고려를 재조(再造)하려는 역사의식을 가졌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삼국유사〉의 찬술로 나타났다"면서 "따라서〈삼국유사〉의 성격을 야사, 설화민담집, 하나의 만록(漫錄), 불교(문화)사 등으로만 볼 수 없다. 시대의 고민과 일연 및 불교계 사관을 반영한 역사서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왕리준 이코모스 중국위원회 부위원장이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중 한 곳인 통도사를 현지 실사하고 있다.

한국의 산사, 세계 유산 등재위한 실사

추진위, 9월 11~16일 현지 실사… 왕리준 소장 담당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중인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에 대한 현지 실사가 진행됐다.

산사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위원장 자승)와 문화재청(청장 김종진)는 "2017년도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으로 신청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에 대한 이코모스(ICOMOS,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의 현지 실사를 9월 11~16일 진행했다.

이번 실사는 왕리준(王力軍) 이코모스 중국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중국건축역사연구소 소장이 담당했다.

세계유산으로 신청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은 △통도사 △부석사 △봉정사 △법주사 △마곡사 △선암사 △대흥사 7개 산사로 왕 부위원장은 6일간의 현지 실사를 통해 산사의 진정성과 완전성, 전 사찰의 보존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사찰 스님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이번 실사 결과를 포함한 이코모스의 최종 평가결과는 내년 6~7월경 개최하는 제42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세계유산 등재 심사에 권고사항으로 보고되며, 해당 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이에 대해 산사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는 "'산사'의 세계유산 등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사찰, 지자체, 문화재청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지속적인 학술 및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전통산사 30곳 문화재를 만난다

문화재청, 지역문화재 활용 사업 277선 선정

전통산사의 유 · 무형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선보여진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2018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30선을 비롯해 △'문화재 야행' 22선 △'생생문화재' 130선 △'향교 · 서원 문화재 활용' 95선 등 총 277선을 선정했다.

이들 사업들은 지역 문화재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개발해 지역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공모에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석 달 동안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총 456건이 접수돼 277선의 사업이 선정됐다.

이중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30선은 인문학적 정신유산과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전통산사의 문화재적 가치와 의미를 체험 · 공연 · 답사 등의 형태로 국민이 누리는 고품격 산사문화 관광프로그램이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속리산 법주사의 '사시사악(史視樂樂)-역사를 돌아보는 한걸음' △오대산 월정사의 '오대자락, 천 년의 인고를 품다' △지리산 실상사의 '실상사, 마을과 함께한 천년의 향기를 느끼다' △도솔산 선운사의 '보은염 이운행사, 1500년을 이어온 은혜 갚은 소금이야기' △조계산 송광사 · 선암사의 '조계산 천년산문을 열다' 등이 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문화유산이 핵심 관광자원으로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회원(단체)등록 안내

본 법인은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제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법인설립을 허가 받은 단체로서 본회 회원(종단 및 사암)을 모시고져 지면을 통하여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 **설립동기** : 대덕 큰스님께서 활동하셨던 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법인설립자와 회장단이 독선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회장단과 회원들간에 소통하며 투명하게 운영하면서 모든 행사를 회원들과 협의하여 행사일정을 잡고 회원들 상호간에 서로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본회를 설립한 스님들도 위와 같은 소망을 추구해 왔던 당사자로서, 회원(종도)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단체등록 및 행정지원

1. 종단 및 사암, 문화예술 단체등록
2. 세무서 고유번호등록 서식
3. 관청 등록번호등록증명서 서식
4. 관청 단체명의 차량등록 서식
5. 종단 및 사암운영 행정 서식
6. 사단, 재단법인설립 서식

▶ 회원(종도)에게 발급하는 증명서

1. 법인명의 가입증명서
2. 법인명의 소속증명서
3. 법인설립허가증
4. 법인명의 신분증, 승려증
5. 기부금영수증서식, 기부금영수증발급대장, 명세서 서식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홈 페 이 지 : 인터넷 주소창에서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한국 또는 http://sansoo5.cafe24.com
대구사무실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로 205(성당동) 2층 전화 053-621-0408
강원사무실 : 강원도 동해시 만우안길 5-3(만우동) 정심사 전화 033-534-3956

제24차
청암사 승가대학 총동문회

삼보에 귀의하옵고,
머무는 곳마다 주인으로 애쓰고 계실 청암 동문 여러분!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번 제24차 총동문회가 어김없이 청암사에서 열리오니 선. 후배 동문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날 짜 불기 2561(2017)년 10월 9일 (음, 8월 20일) 월요일
시 간 오후 2시
장 소 청암사 자양전
문 의 054)432-2652



청암사승가대학총동문회장 유화 합장